

혁신도시 효과 나주로...나주시의 '고군분투'

건설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광주서 나주로 이전 요청

광주 거주 이전기관 대표들 지역에 모여오기 안간힘

‘혁신도시’ 발(發) 경제 효과를 뽑아내기 위한 나주시 몸부림이 치열하다. 타지역도 아닌, 광주에 건설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나주로 유치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에 나서는가 하면, 이전기관 직원들의 ‘광주 쏠림’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당 기관장들의 ‘나주 모시기’ 전략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어서다.

◇모델하우스 찾은 뒤 고풍 한 그릇만 먹어도=나주시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가 광주에만 건립되는 데 주목, 모델하우스 나주 유치를 내걸고 건설사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부지를 빌려줄 경우 얻는 수익을 노린 게 아니다. 입주를 계획하고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구가 수 천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나주 홍보에다 관광 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주시가 올 7월 이후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델하우스는 부영(6052세대)·대방산업개발(765세대)·라인(293세대) 등으로 대방산업개발의 경우 나주시 부지(1984㎡)를 빌려 운영하는 데 따른 사용료(연간 1억5000만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영도 나주에 모델하우스 건립을 약속한 상태로, 라인만 기존 광주에 운영 중인 모델하우스를 유지한다.

앞서, 나주 혁신도시 내 들어선 6개 아파트(4892세대)의 경우 광주에만 모델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고작 1개 아파트(1078세대) 건설사만 나주에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바 있다. 모델하우스 장소가 나주였다면 최소 4892명이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관광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나주시 판단이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내 들어설 나머지 16개 아파트 모델하우스 유치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나주시는 해당 건설사들의 거래은행도

나주	광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주식회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우정사업정보센터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어촌공사(화순)
문화예술위원회	
농촌경제연구원(예정)	

건설사	세대수	위치
부영	6052	혁신도시
대방산업개발	765	혁신도시
라인	293	광주시

‘나주’ 소재 광주은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3개 기관장 사택을 나주로”=나주시의 혁신도시 이전기관장 모시기도 치열하다. 상당수 이전기관 직원들이 생활 여건과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도시인 광주 거주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기관장이

나주에 거주하게 되면 직원들이 광주에 주거하는 ‘광주 쏠림’ 현상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노림수’를 썼다.

당장, 오는 3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사택을 나주에 마련해달라는 적극적인 요청 끝에 성사시켰다. 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광주에 살다 최근 나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13개 이전기관 중 한전 KDN·전력거래소·농식품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7개 이전기관장 사택을 나주에 두는 성과를 올렸다.

나주시는 나머지 광주 등 타지에 사택을 둔 이전기관장들의 나주행에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높이고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델하우스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행정적 지원이나 주변 관광지 소개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해질녘 18:26
해질 19:38 달뜨기 04:11

폭염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5/34	보성	맑음	23/33
목포	맑음	24/31	순천	맑음	24/34
여수	맑음	24/31	영광	맑음	24/33
나주	맑음	25/34	진도	맑음	24/32
완도	맑음	25/32	진주	맑음	25/33
구례	맑음	23/35	군산	맑음	25/32
강진	맑음	24/33	남원	맑음	24/34
해남	맑음	25/33	홍산도	맑음	23/29
장성	맑음	24/33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남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남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동해	남해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06	13:04	06:38	18:36
여수	07:59	19:02	02:09	14:01
	20:46			

◇주간 날씨

31(금)	8/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	☀	☀	☀	☀	☀	☀
24/33	25/32	25/33	24/33	24/33	24/33	24/33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70

술독에 빠진 경찰관

음주운전 5일에 하루꼴 적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경찰관들이 올해 들어 닷새에 하루꼴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수시로 엄단을 경고한 경찰이 되레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국이다.

단속 음주운전은 단속되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위험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은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이날 현재 총 4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

5일마다 한 명씩 걸려든 셈이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3년 82건, 지난해 73건으로 줄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은 내부 음주운전을 막고자 다양한 예방 행사를 했다. 음주 가상 체험, 절주운동 캠페인 등을 수시로 벌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 예방 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술방망이 처벌을 하는 운전자들의 문화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청자골 강진으로 오세요

29일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 인근 가마터를 찾은 학생들이 도공으로부터 강진청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인 '제43회 강진청자축제'는 다음달 1일~9일까지 강진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캠핑장 전기·가스 사용제한 3년 유예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 이동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야영객과 캠핑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야영객 전막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13kg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반입 ▲방역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초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자재를 즐기자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는 데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령 근로자 세워 인건비 횡령

농어촌공 직원 2명 파면·해임

한국농어촌공사는 근무하지 않은 유령근로자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인건비를 횡령한 직원 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를 총괄하는 처장과 본사-지역본부 부장 6명을 직위해제하고 전국 8개 지역본부 관련 부장을 8월 1일 자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하수 현장조사 업무

와 관련해 일하지 않은 근로자 8명을 등록해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이용, 1억 2000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도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현장감독 업무를 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3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 인건비 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공사는 이들이 횡령한 전액을 회수하고 비리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선착장 추락사고 대책 마련

항만시설 1099곳 일제 점검

전남지역 섬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예상됨에도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 등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광주일보 28일자 7면)과 관련, 전남도가 도내 항만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30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전남지역 항만

및 어항 등 1099개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시설물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또 국가 관리 항만시설(4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시설물을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은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는 물론, 관리 중인 8개 연안항의 안전시설 강화 목적으로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윤현식기자 chadol@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귀에 쏙~

〈귀의 보이지 않는 귀속형 보청기〉

외관모습도 중요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한달 3~4만원!!

둘째, 전부 무료

셋째, 맞춤 귀속형

■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점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 대전동구본점: 대한보청기와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 공동 연구사업 및 연구 협약국입니다. ※ 상기본사제원은 전국 어느 지역을 가나 동일한 서비스(제품·가격)서비스를 제공합니다.